

新아베노믹스와 공급능력 강화

* 이 자료는 미야가와 쓰도무(宮川努) 가쿠슈인(学習院)대학 교수와 타키자와(滝澤美帆) 미로 도요(東洋)대학 교수가 일본경제신문: 신아베노믹스의 가능성, 공급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낙관적인 전망 경계해야(2015.10.6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수급 갭의 해소 원인으로서는 잠재성장을 저하
- 설비투자 침체로 인한 공급능력 부진
- 기업은 시장 변화에 따라 투자전략을 전환해야

□ 新아베노믹스와 새로운 3개의 화살

- 2015년 9월 자민당 총재에 재선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새로운 단계로 전개한다고 선언
- 이른바 새로운 3개의 화살이라 불리는 이 같은 정책이 실현가능할 것인지는, 이제 까지 아베노믹스에 의해 어느 정도 일본경제가 개선되어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는가에 좌우됨
-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도 있어 간단치 않음
 - 예컨대, 당초 강조되었던 물가는 여전이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
 - 소비와 생산도 신통치 않고 결과적으로 GDP는 아베노믹스 실행 초기에 비하여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음
- 그럼에도 근본적인 비판이 일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호전과 엔저가 가져 온 기업수익임
- 新아베노믹스는 GDP 600조 엔이라는 목표에 상징되는 높은 성장력을 배경으로 저출산 대책과 내용이 충실한 사회보장을 꾀하려 하고 있음
- 그러나 명암이 교차하는 경제지표를 보는 것만으로 높은 성장력의 근거는 발견할 수 없음
- 이하에서는 일본의 잠재성장력을 재검증, 아베노믹스의 영향과 새로운 아베노믹스의 실현가능성을 분석

□ 잠재성장력의 저하 원인을 고려한 처방전 제시해야

- 아베노믹스에서는 첫 번째 화살인 대담한 금융정책과 두 번째 화살인 기동적인 재정정책은 실시되었으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충분하지 않았음
- 이는 아베노믹스가 총수요 진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
- 그러나 이상한 것은 총수요자극책에 의해 수급 갭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기에 해소되고 노동시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GDP의 증가폭은 아베노믹스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저조했다는 점임
-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공급사이드인 잠재성장력의 저하도 고려해야 함
 -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력 저하는 노동인구 감소에 의해 의한 것임
 - 그러나 생산연령인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감소로 반전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특징은 아님
 - 이 점을 고려하면 설비투자의 침체에 의해 자본축적 감소도 시야에 들 필요가 있음

□ 新아베노믹스의 성장전망 근거와 문제점

- 노동력만이 아니고 자본축적도 침체된 공급능력의 취약성을 고려하면, 2%의 잠재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新아베노믹스는 중장기에 걸친 잠재성장력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기술진보율 달성을 상정하고 있음
- 그러나 버블 붕괴 후 일본이 이만큼 높은 기술진보율을 장기간 달성했던 적은 없고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전략도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움
- 일본정부는 과거 버블 붕괴 후에 발생한 부실채권문제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, 대형 공공투자도 경기를 부양, 출생률을 높게 잡아 사회보장부담 문제를 뒷전으로 해옴
-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한 정부는 그 후 금융위기와 사회보장정책에 뒤늦은 대응 등을 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일본경제, 특히 재정에 큰 부담을 강요하고 있음
- 이번에도 높은 성장률 전망으로 의욕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

□ 노동시장만의 개선과 그 이유

- 왜 노동시장만이 개선되었는가 하면 기업들은 총수요의 증가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, 자본의 증강보다는 노동력의 증가로 대응하려했기 때문임
 - 이는 노동시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비율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점으로부터도 명확함
 - 또 경제주체들이 이제까지의 아베노믹스가 장기적인 공급능력 저하와 동반된 단기적인 총수요증가책임을 알게 되는 경우, 장래의 물가상승기대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임
-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최근에는 양자의 수급 겹에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을지 모름
 - 그러나 장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근년의 공급능력 침체를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음
 - 2010년대의 자본스톡 증가율은 0.1%에 불과

□ 문제점 극복을 위한 과제

- 일본정부는 공급능력 강화를 위해 우선 개선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, 노동자가 능력에 따른 노동과 보수가 얻어지는 유동적인 노동시장을 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함
- 기업도 수요증가에 대응한 종래의 설비투자방식을 지양하여 IT투자와 같이 노동력 인구 감소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가운데 수익력을 높이는 투자전략으로 전환해야 함
- 지속가능한 일본경제를 지향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탄탄한 정책을 실행하는 외에 방법이 없음.